

강유훈  
·  
강필순  
·  
김지수  
·  
김혜수  
·  
남궁경  
·  
박래현  
·  
백연주

# 내가 地上에서

「시창작교실」2집

송일산  
·  
유문순  
·  
유성숙  
·  
윤금숙  
·  
이지현  
·  
정주신  
·  
한덕수

**이**들이 보여주는 시세계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 신인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적 공간을 보여준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신인들 모두가 신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창작교실」 2집에 시를 발표하고 있는 신인들은 지난번에 펴낸 제 1집에서도 그랬듯이 신인다운 목소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험을 형상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 인식의 차이와 시적 인식의 차이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시세계는 개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논리를 파괴함으로써 시적 공간을 획득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즉, 재현의 미학보다는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여 새로운 공간을 빛는 기호의 미학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 李昇薰 (詩人)

김 지 수

난 아무것도 안 한다  
통 속에 갇혀 있다  
식물인간다

## 기쁨

어제 오늘 눈비 맞는 것은  
봄과 겨울의 처절한  
싸움 속에 섰음이니  
하나 되는 까닭으로 시절은 가고  
물이라 흘러 꽃은 피는가?  
계절이 바뀔 무렵 서글픈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 있음이다.

## 九死一生

겨우내 고삿길 날은 풀려 눈은 녹고  
엇그제 입춘이라 한바탕의 좋은 시절  
이제금 머지않아 봄은 또 오겠지  
늘상여 걷는 걸음 오늘이라 다르랴  
목단추 풀어제쳐 숨들이기 좋진마는  
무건 걸음 사려잡고 근화 틈을 빠져 나가  
이제야 살았어라 찻집에 들어서면  
말똥말똥 그 소녀가 슬프도록 날 반긴다

## 十八

난 韓國사람이 아니다  
국민학교 적부터 현대식 교육을 받아온 난  
풍금의 가련한 음색과 트라이앵글의 칭얼거리는  
소리를 우리 할매 들려 주던 옛날이야기처럼 기억할 뿐  
장고나 가야금의 소리를 훑쳐내지는 못한다

내용도 알 수 없는 팝송이나 들어왔으며  
솔리드 골드풍의 디스코 클럽이나 기웃거리고  
만화가게에 쭈그려 앉아 자막 없는 비데오나  
넋을 잃고 쳐다 보는 난 확실히  
한국의 시민다운 흔적을 추출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회화를 배운답시고 손바닥만한 카세트를  
허리에 꿰차고 밤톨만한 헤드폰을  
킷구멍에 엉겨주춤 쭈셔박은 난  
자동차의 클락손 소리마저 못 듣고 마는

분명한 21세기 한반도의 버림받은 자생아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핑과리 사이에서 鑄造된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신식민지 까페촌의  
맹신적 甞生人間인 것이다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 위산과다

이 소리 이 소리  
단 한번 우연한 균열의 틈도 없이  
(이거빠대채은제가플려그래당시니돈꾸어  
간지가벌써삼너니지낫써그동안감는다감  
는다말만햇찌한버니라도제대로시랭한적  
잇써인느냐마라튀이새끼야이개색까너어  
따대고요기야너정그런시그로나오면나도  
생가진은노마이거왜이래어이새끼뜨년네)  
위장엔 기습처럼 테러가 일어나고……  
더 이상의 位階秩序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내가 地上에서

내가  
地上에서 唯一하게 표현에 실패한,  
산이슬처럼 빛나는,  
그 소녀는

하얀  
도화지 펼쳐 놓고 종일토록  
그림에만 沒頭해 있는데,

빨간 색깔로는 튜울립을 그리고  
노란 색깔로는 별을 그리고  
파란 색깔로는 바다를 그리고……

은 世上  
의 것들을 다 그리지만,  
나는 한번도  
그리는 적이 없습니다.

## 술 잔

제1공화국은민주공화국이다  
제2공화국은민주공화국이다  
제3공화국은민주공화국이다  
제4공화국은민주공화국이다  
고로  
제5공화국도민주공화국이다

## 벽

매춘의  
무리들이 어울려  
춤을  
추는 밤  
밤엔 술을 마셨다  
백열등이 길어다 준  
불면의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그리운 얼굴  
하나  
있을 리  
없는데  
초침에  
쫓길 일도 없는데

나는  
왜 지금껏  
벽에 기대어  
있는가  
나는  
왜 누런 허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가